"담보금 48억 원 돌려달라"

광주 어등산단지 사업 포기한 '서진건설' 뒤늦게 소송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취소 소송…당좌수표 반환 청구
광주시 "공모지침 따라 취소 적법…법정에서 가릴 것"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응하지 않아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식상으로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는 내용이지만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최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예비적으로 4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반환도 청구했다.

소송은 시와 도시공사가 지난해 말 서진건설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은행에 예치한 48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 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을 광주은행에 당좌수표로 예치했다.

당좌수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행 담보금 형태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4년 넘게 표류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듯 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납부방식과 사업 내용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컸다.

수차례 협약 연기 끝에 지난해 12월20일을 최종 협약 시한으로 정했으나 서진건설은 막판에 아무런 설명 없이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는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협상 결렬 후 서진건설은 담보금 4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협상 결렬의 귀책사유가 서진건설에 있는 만큼 담보금 48억원은 자연스럽게 시에 귀속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을 안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48억원의 소유권은 법정 다툼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산한 中 항공사 발권 카운터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중국 동방항공 발권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체 대표 취임식서 총선 후보자 홍보…선관위, 검찰에 고발

"위법행위 빈번 발생 예상…단속활동에 총력"

전남도선관위는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쯤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알선수재-민간공원 재판 병합 요청 불허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씨의 사건을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과 이씨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사건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불허했다.

법원은 이씨의 사건이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그룹 회장 B씨에게 친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말해 광주시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 단신 ●

다섯살 원생 폭행한 40대 어린이집 교사 입건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배기 원생 2명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원생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폭행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원생을 대상으로도 주먹을 휘둘렀는지, 추가 폭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환풍기 원통 제조업체 공장 기계에 낀 30대 숨져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의 한 환풍기용 원통 제조업체 공장에서 직원 A씨(30)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가 신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원통 제조 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중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점서 50대 男 사망…목격자들 "술값내기 해"

인천의 한 주점에서 동갑내기 친구와 술값내기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주점에서 A씨(54)와 B씨(54)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두 사람 모두 쓰러져 있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A씨는 끝내 숨졌으며,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주점 목격자들은 경찰에 "(A씨와 B씨가) 술값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 주점을 방문했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으며 소주 6병을 더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아직 B씨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B씨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거주 별채에 불 질러

제주 서귀포에서 70대 노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2시25분쯤 서귀포 남원읍 태흥리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A씨(51)가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지내던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집 밖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사고는 별채 옆 단독주택에서 살던 A씨의 아버지 B씨(79)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